

# 지방공사 남원의료원



姜忠求원장



▲ 개방된 원무과 창구

춘향과 이도령의 애절한 사랑과 탐관오리의 말로를 그린 춘향전의 고향 남원, 춘향전에 나오는 광한루와 오작교등을 말끔히 단장하여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인근에는 국립공원 지리산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사계절 줄을 잇고 있다.

1921년 관립 남원자혜의원으로서 개설, 16병상으로 출발한 이래 현재 의사 41명, 간호사 71명, 약사 4명등 총 282명의 직원으로 농촌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15개 진료과에 250병상을 갖추고 일일평균 외래 300명, 입원 253명을 진료하는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성장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제공 및 주민의 진료와 질병등에 대한 임상연구 또는 의료인의 수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병원은 현재 3천9백여평의 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본관건물, 지상 6층의 부속건물등 병실 69실 250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CT, 리모트콘트롤 X-Ray, 적외선 체열촬영기, 태아감지장치등 첨단의료장비를 갖추고



▲ 치매클리닉 개설기념 현수막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친절, 신속, 정확”을 원훈으로 정한 남원 의료원은 진료권역이 주로 노인들이 많은 농촌지역임을 고려하여 원무과 직원과 환자가 가까이 근접할 수 있도록 원무과 창구를 93년 10월부터 개방하여 운영하므로써 좋은 결실을 얻고 있다.

또한 96년 9월 농촌지역에는 유일하게 치매클리닉을 개설하여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의 진료지원하에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진단을 통하여 조기치료를 하므로써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매에 대한 홍보문안을 지역의 65세이상 노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노인환자의 정기적인 기본검사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은 이조 시대인 1921년에 관립 남원자혜의원으로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으로 전환하기까지 남원시 뿐만 아니라 인접 지리산 권역 농촌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여 온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내원객이 급증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갈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남원 의료원 실정상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남원의료원이 시내 중심권에 위치해 협소한 대지 및 노후화된 건물로 위험이 가중되고 또한 대도시 지역에 대형병원이 집중화되면서 열악한 남원 인근 지역의 의료현실이 악화되면서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이 후송되는 등 상대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의료비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1992년 지역주민들의 요

청에 따라 강충구원장이 취임, 남원의료원 현대화신축 이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의료원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새로 부임한 강원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원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에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실정을 호소하며 남원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북의 현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남원의료원 신축 이전 문제는 당초 예상대로 많은 반대와 난관에 봉착해야 했다. 그러나 숱한 어려움에도 우리 지역의 절대적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마침내 94년도 전국 34개 의료원중 유일하게 남원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의 승인이 떨어졌다.

전체 사업비 약 400여억원중에서 현재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금 200억원은 확보되었으며 현부지 매각 대금 및 공기업자금 융자분등을 합하면 약 300여억원 정도가 사업비로써 확정된 셈이고 내년도 사업비 90억원을 국비 지원금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새로 신축될 남원의료원의 전체 대지면적은 3만2천여평이며 총건축면적은 약 1만2천여평에 달한다. 전체 병상수는 약 400병상으로 본동은 지하 3층 지상 8층의 콘크리트 구조로써 각 건물은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하여 정남향으로 배치된다. 특히 본동부분의 외관은 자연과 가장 친근감이 드는 소재인 유리로 채택, 주위경관과 잘 어울어진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실루엣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로 이전하는 의료원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물류이송체계의 자동화 설비를



▲ 임상병리 검사실

될 수 있다. 남원의료원은 과거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물류이송 체계의 수직이송을 모두 자동화하고 간단한 물류이송은 기송관(air shooter system)을 채택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이송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각종 시설도 환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배치했다.

외래 진료부는 지상 1층과 2층에 각각 위치하며 병원 로비에 들어서면서 그 인지도를 용이하게 배치하였고 현관은 마치 호텔과 같은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케 하였다. 지상 1층에 방문객 및 직원들의 유아를 위한 탁아소가 설치되었으며 방사선 및 중앙검사실이 편측에 배치하여 방향성을 뛰어나게 하였다. 2층에는 중간부위 현관부를 전면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간이 커피숍을 두고 한쪽에 각종 검사실 및 종합검진 센터가 배치될 예정이다. 건물의 2층 맨 우측에 응급실 전용 유도 도로가 설정되어 혼잡을 피하게 하였으며 수술실 및 중환자실은 같은 구역으로 설정하여 최대한 환자 이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3층은 주로 최첨단의 8개의 수술실과 내, 외과계로 구분된 2개의 중환자실과 분만실 및 신생아실이 배치되어 있고 4

층부는 관리층으로 구성하였으며 5층에서부터 8층까지가 환자들의 입원실로 특징은 100% 자연채광 및 자연 환기가 되게 배치되었고 입원실의 면적도 기존의 병원들에 비해 월등히 넓고 안락하게 배정하였다. 또한 각 일반실에도 전부 화장실 및 세면실 개인 옷장등을 비치했다.

더불어 각 병동에 1개소씩의 환자 편의 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휴식실을 마련해 독서나 면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이밖에도 지하 1층은 슈퍼마켓 이·미용실, 식당, 서점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외래객이나 보호자들을 위한 시설을 두었다. 이러한 여건과 함께 의료시설 또한 대폭 보강이 될 예정이다. 요양 병동부(치매 병동부)는 치매환자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들을 위한 시설로 약 470평에 50병상의 단층으로 구성하고 인공호수 앞에 가장 안락하고 경관이 미려한 곳에 배치하였다.

모든 병실에는 장애자용 시설이 부착되고 장애에 기대되는 증축 개념도 평면으로 처리하여 최대한 노인들의 불편을 덜고 편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물리치료실은 국내에서 드물게 실내와 실외 잔디밭까지 연계할 수 있어 자연적인 경관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안배를 했다. 이외에도 남원의료원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 대지의 전면부에는 양질의 송림을 가꾸어 환자들의 휴식공간

으로 활용하고 진입로에 인접한 대지에는 각종 체육시설 등을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명실상부 남원시민을 위한 남원의료원으로 자라잡아갈 방침이다.

앞으로 약 3년간의 공사후 새롭게 남원의료원이 완공이 되면 가히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가장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쾌적한 환경우선의 병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때가 되면 국공립병원으로 자랑하는 청정지역의 환경과 국악의 본고장 애향도시 남원의 다양한 자연봉사 프로그램등으로 내실있는 노인복지센터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남원시뿐만 아니라 3개도 농촌 주민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노인 질환연구소 및 농촌질환연구소를 개설하게 되면 학문적으로도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지역주민들의 의료에 대해 더 한층 높은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다 86년부터 남원의료원 이사로 근무하던중 92년에 원장으로 선출된 강충구원장은 “우리 의료원은 공익의료기관이므로 영리추구보다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환자를 내 가족처럼 성실하게 진료하고, 행정업무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